

#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간의 관계 분석\*

##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es in Postpartum Depression and Child-rearing System Variables in Korean Mothers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천 희 영\*\*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옥 경 희\*\*\*

Dept. of Child Welfare, Kosin Univ.

Professor : Chun, Hui-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wangju Univ.

Professor : Ok, Kyung-Hee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postpartum depression in mothers from one month after childbirth to the first year using panel data collected overtime,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change and child-rearing system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097 mothers who belonged to both the lower and upper 30<sup>th</sup> percentile groups in the depression change distribution of the 2008 Korean Children Panel Study (PSKC), a large, population-based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chi^2$  tests,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during the first year as opposed to the first month after birth.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of the mothers, the changes related to depressi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ild-rearing stress, and the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but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s self-esteem, the child's birth order, and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activities. Third, variable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changes in postpartum depression were the mother's self-esteem and child-rearing stress, the child's age in months,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pertaining to the mother's characteristics variables had a more powerful effect than other child-rearing system variable categories. Th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to develop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or a mother-child health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mothers, 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n effort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

▲주요어(Key Words) : 산후우울(postpartum depression), 한국아동패널(Korean children panel), 양육체계(child-rearing system), 영아 발달(infant development)

---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고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주 저 자 : 천희영 (E-mail : chunhy@kosin.ac.kr)

\*\*\* 교신저자 : 옥경희 (E-mail : june659@hanmail.net)

## I. 서론

출산은 여성이 경험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과정이지만 그에 따른 정서적인 변화가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Craig, 2003; Crockenberg & Leekes, 2003; Forman et al., 2007). 출산 후 산모에게 생기는 감정의 심각한 변화인 우울은 정서적인 기분의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장정애, 2006). 산후우울은 출산 초기에 모성 역할에의 적응을 늦춰 양육기술을 낮추고 기계적으로 영아를 돌보게 할 뿐만 아니라(Jennieffer, 2006), 자녀에게 행동적 및 정신과적 문제를 결과하게 할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되었다(Downey & Coyne, 1990). 즉 어머니의 우울한 정서가 아동에게 전이되면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로 나타나 철회,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공격성·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외현화된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진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은 생애 초기부터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문경주·오경자, 2002; 방경숙, 2008; Beardslee et al., 1983). 따라서 아동학에서 어머니의 산후우울증은 부모역할수행을 통한 아동발달에의 영향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이지만, 오히려 산모의 건강과 간호에 초점을 두는 간호학, 임상심리학 또는 임상의학의 영역에서 더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천희영·옥경희, 2010).

이와 같이 산후우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대략 80%의 산모가 겪는 출산 직후의 산후우울(Baby Blues)은 산후 2주경 사라지며, 출산 후 2달까지 우울한 기분이 확대되는 정상적인 산후적응(normal postpartum adjustment)은 대부분의 산모가 벗어나게 되며, 이후에도 산후 정서장애를 보이는 산모는 10~15% 수준이라고 보고됨(Beck, 2002; O'Hara et al., 1984)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결과 보고서(조복희 등, 2009)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출산전 평균 11.27(우울집단 25.7%)에 비해 출산후 1개월 시점에서 평균 9.08(우울집단 11.5%)로 감소하고 1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평균 11.67; 우울집단 28.5%)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로써 산전후 우울의 변화를 보았던 신나리(2010)는 산후 4주 시점에서 임상적 수준의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산후우울증의 발병률이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비교적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며 이들의 우울 수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산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다시 높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 산모가 산후 4주와 8주 시기에 보이는 산후우울은 차이가 없다는 오현이(2001)의

보고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영아기의 자녀를 본격적으로 양육하는 시기인 생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권미경 등, 2006)을 고려할 때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어머니 우울의 증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천희영과 옥경희(2010)는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어머니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을 분석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그리고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활동성기질, 가족 외부인의 사교적 지원이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어머니의 산후우울이 생의 초기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양육환경 변인(Martins & Gaffan, 2000)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영아 어머니들의 산후우울 관련 변인의 분석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국내 연구들에서 산후우울은 그 측정시기가 출산후 6주(이선옥 등, 2010)에서 출산 후 2년 이내(안영미·김정현, 2003)까지로 매우 다양하며, 출산 후 특정 시점에서 횡단적 접근으로 측정, 연구됨으로써 산후우울의 지속 또는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신생아 표본을 대상으로 한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어머니 산후우울의 반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아 어머니의 산후우울 경향을 파악하되 산후우울의 개인내 변화 즉 산후 1개월과 그 이후 시기에 측정된 우울 수준간의 변화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산후우울의 변화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양육 관련 변인들의 민감한 역할 발견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의 독립변인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우울을 측정할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산후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의 발견을 목적으로(김지양, 2004; 유정미, 2008; 이숙자·임성욱, 2006) 또는 산후우울을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역할의 확인을 목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산후우울은 어머니의 특성(김현진, 2007; 유정미, 2008), 그리고 사회적 지지(안옥심, 2004)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변인들은 아동의 양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산후우울에 대한 변인의 영향 유의성 또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천희영·옥경희, 2010).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채택한 아동환경 분류 체계 및 조사내용 영역(조복희 등, 2009)을 참고하여 양육 관련 체계변인들을 어머니 특성, 영아 특성, 가구 및 가족내 특성, 가족외 특성의 범주에 따라 선정하였다. 범주별 하위 양육 관련 체계변인과 산후우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특성 범주는 하위변인으로 긍정적 심리 특성인 자아존중감, 부모됨 특성으로서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포함하였다. 출산은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모성역할 전환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중요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 출산 후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영아의 양육에 따른 부담감과 미숙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이나경, 2006). 이에 어머니의 부적절한 역할 전환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우울반응과 관계가 있고 이는 다시 역기능적인 모자 상호작용 행동 및 낮은 부모역할 적응을 결과한다고 보고된다(안영미·김정현, 2003; 이경선, 2010; 정윤주·채진영, 2010). 홍영진(2001)이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의 중재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또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뒷받침해준다.

어머니의 부모됨은 자녀 및 양육과 관련된 가치, 신념, 지식, 양육실제 및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조복희 등, 2009). 양육실제는 양육행동 및 그와 관련된 가치나 태도를 포괄하지만(최유리, 2006) 선행 천희영과 옥경희(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유의한 관계는 있으나 유의한 예측 변인은 아니라고 밝혀진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를 부모됨 특성의 하위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양육지식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이상적인 발달 상태에 관한 지식과 바람직한 양육방식 및 일반적인 발달원리에 관한 지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이다(Benasich & Brooks-Gunn, 1996). 이에 양육지식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높은 양육효능감,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으며, 영아의 긍정적 발달 수행이나 자녀의 높은 인지능력 및 낮은 행동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다(이주연, 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출산 후 어머니가 인지·정서·기술적으로 부모로서 대비하게 하여 양육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며(이화자 등, 2004),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 자신감과 양육효능감을 높여 양육에 따른 불안감을 낮추고 적극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오현이, 2001; 이주연, 2009). 이에 양육지식과 산후우울간의 유의한 관계를 추측할 수 있었다. Mercer(1985)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가장 빈번한 스트레스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아기의 간호와 수면부족, 책임감, 개인시간의 부족 등을 제시했다.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며(권미경, 2011; 문혁준, 2008), 어머니 자신에게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반응인 우울 증상을 초래한다고 알려진다(안옥심,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약 8~12%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보이거나 그러한 우울 성향으로 다시 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김미예와 박동영(2009)의 지적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들(권미경 등, 2006; 박영주 등, 2004; 유정미, 2008; 장정애, 2006; Webster-Stratton, 1988)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된 바 있다.

본 연구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두 번째 범주는 영아 특성이었다. 영아의 특성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적 영향 관계에서 영아가 발달적 주도자로서 역할한다는 주장(Lerner & Busch-Rossnagel, 1981)에 비추어 부모역할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의 변별적 접근(differential approach)(Lerner, 1986)에서 주요 발달 변인 범주로 제시한 지위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성, 월령, 출생순위, 그리고 행동적 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발달특성, 기질을 영아 특성 범주의 변인들로 선정하였다. 이 변인들은 Belsky 등(1984)이 부모역할수행에 영향 미치는 주요 아동 특성으로 제시한 변인들에 포함된 것이기도 했다. 영아의 지위속성 범주의 변인들과 어머니의 산후우울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영아의 월령과 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문영경·민현숙, 2010), 성과 출생순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권연희·나종혜, 2010; 문혁준, 2004; Scher & Sharabany, 2005)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산후우울이 양육자로서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하는 효능감의 저하나 높은 양육부담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이라 할 때 영아의 지위속성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영아의 양육환경과 발달의 관계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영아의 행동적 속성 범주에 속하는 발달특성 즉 발달의 수준은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고(서주현·김진경, 2010), 특히 장애아동(이숙자·임성옥, 2006)이나 미숙아(강수정·김지원, 2010)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정상아동 어머니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었다. 영아의 기질과 산후우울증과의 관계 연구들의 메타분석에 근거하여 Beck(1996)은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영아의 타고난 부정적인 기질 특성이 어머니 자신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수행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거나(박성연 등, 1996) 우울도가 심각해진다는 연구결과(권미경 등, 2006; 장정애, 2006; Coleman et al., 2002)도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어머니 특성과 영아의 특성 외에 양육 관련 체계에서 어머니와 영아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양육에 관련된 중요 환경으로서 가구 및 가족내 특성, 가족외 특성 범주를 선정하였다. 전자의 범주에는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변인이, 후자의 범주에는 사회적 지원 변인이 포함되었다. 가구의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가구소득은 부족 시 가구원의 심신건강을 취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분노,

우울감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차승은, 2005; McLoyd, 1990). 그러나 수입이 적을수록 우울의 유병이나 증가가 나타난다(허보운 · 한경자, 2009; Beck, 2001; Dearing et al., 2004)는 연구결과와 가구소득과 우울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김현진, 2007; 장정애, 2006)는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출산후 가족내와 가족외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역할수행 과정에서 심리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우울의 감소와 같은 어머니 개인의 인성과 밀접히 관련된다(이재림 · 옥선화, 2001). 특히 가족내 배우자의 지원은 가족관계의 결속 증진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전환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양육에의 실제 자원을 통해 양육을 위한 지지나 가사분담뿐 아니라 영유아기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알려준 바 있었다(여정희, 2006; 장정애, 2006; Jung & Kim, 2005).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특성으로서 가족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 역시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보고되었다. 산후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높은 사회적 지원이 낮은 산후우울과 관계가 있고(박영주 등, 2004; Beck, 2001),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김지양, 2004)도 밝혀진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아 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가 어떠한지,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 즉 어머니 특성, 영아의 특성, 가구 및 가족내 · 가족의 특성 범주의 하위변인들간의 각 관계를 확인하고 산후우울 변화도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예방 요인의 발견은 물론 우리나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양육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연구문제 1>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는 양육 관련 체계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 산후 1개월과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시점(산후 평균 4.68개월)에서 측정된 우울 점수간의 차이점수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2. 양육 관련 체계변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채택한 아동 환경 분류체계 및 조사내용 영역(조복희 등, 2009)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선정된 아동의 양육 관련 변인을 의미하였다. 이

는 다시 어머니 특성, 영아 특성,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를 둘러싼 가구 및 가족내 · 가족의 특성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특성은 긍정적 심리특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 부모됨 특성으로서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영아 특성은 지위 속성으로서의 월령, 성, 출생순위, 행동력 속성으로서의 발달특성과 기질을, 가구 및 가족내 특성은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를, 가족외 특성은 사회적 지원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분석대상과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한 영아어머니 중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산후우울 변화도의 분포 양극단 30%에 해당하는 1,097명이었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산후우울 변화도에서 대조적인 집단의 분석이 산후우울 변화도 관련 변인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어머니와 영아기 자녀 및 가구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영아어머니의 특성 중 연령은 30대 초반 48.40%, 20대 후반 30.63%, 30대 후반 15.86%로 나타났다, 20대 초반 이하와 40대 이상은 2.91%와 2.19%로 소수였다.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32.91%)와 대학교 졸업(32.54%)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 27.89%, 대학원 졸업 5.8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가 29.81%, 미취업인 경우가 70.10%로 미취업 영아어머니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영아기 자녀의 특성으로서 성은 남아 52.14%, 여아 47.86%의 분포를 보였고,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48.40%)와 둘째(40.57%)가 대다수였고, 셋째 9.21%, 넷째 1.37%, 다섯째 이상 0.18%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월령은 4개월(44.94%)과 5개월(33.36%)이 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6개월(5.38%), 7개월(3.10%), 8개월(2.73%), 3개월(1.82%)의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은 200만원대가 33.82%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 25.62%, 300만원대 19.14%, 400만원대 12.12%, 500만원대 7.02%로 나타났으며 100만원대가 소수(1.64%)로

<표 1> 분석대상 어머니, 영아기 자녀 및 가구의 특성별 빈도(%)

(N=1097)

대상	특성	빈도(%)	대상	특성	빈도(%)	대상	특성	빈도(%)			
어머니	연령	19세 이하	2( .18)	영아기 자녀	성별	남	572(52.14)	가구	월	100만원이하	18( 1.64)
		20~24세	30( 2.73)			여	525(47.86)			평균	101~200만원
		25~29세	336(30.63)		출생 순위	첫째	531(48.40)		가구	201~300만원	371(33.82)
		30~34세	351(48.40)			둘째	445(40.57)		소득	301~400만원	210(19.14)
		35~39세	174(15.86)			셋째	101( 9.21)		401~500만원	133(12.12)	
		40~44세	22( 2.01)		넷째	15( 1.37)	501만원이상		77( 7.02)		
		45세 이상	2( .18)		다섯째 이상	2( .18)	무응답		7( .64)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361(32.91)		무응답	3( .27)	거주지역		대도시	444(40.47)	
		전문대학	306(27.89)		월령	3개월			20( 1.82)	중소도시	225(20.51)
		대학교	357(32.54)			4개월			493(44.94)	읍/면	428(39.02)
대학원		64( 5.83)	5개월	366(33.36)							
무응답		9( .82)	6개월	59( 5.38)							
취업 상태		취업	327(29.81)	7개월		34( 3.10)					
		미취업	769(70.10)	8개월		30( 2.73)					
	시스템 결측값	1( .09)	시스템 결측값	95( 8.66)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대도시(40.47%), 읍/면(39.02%), 중소 도시(20.51%)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우울 및 특성

먼저 어머니의 우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이 간편형으로 제작한 우울척도 'K6'로 측정되었다. K6는 DSM-IV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지난 30일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를 포함한 6개 문항에 대해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산후 1개월 때 .81,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 중 긍정적 심리 특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로써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된 10개 문항(예;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모됨 특성의 하나인 양육지식은 '영아용 영아발달 지식 도구'(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MacPhee, 2002)로써 측정되었다. KIDI는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패널조사(이정림 등, 2010)에서는 '발달원리' 영역의

13개 문항이 사용되었다(예;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면 총 문항 중에서 정답 수의 비율(백분율)로써 점수화되므로 비율이 높을수록 양육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82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또 다른 부모됨 특성 하위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로써 측정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는 척도의 3개 하위영역 중에서 부모역할의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하위영역만을 발췌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2개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10개 문항이 최종 사용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 형식의 문항(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에 대한 반응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2) 영아의 특성

영아의 발달특성은 신희선 등(2002)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형 Denver II'로써 측정되었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서 총 46항목이 실시되었다. 영아의 연령별 해당 항목을 실시하고 항목별 해석 결과가 '정상인 경우 1점, '주의 또는 지연'인 경우 0점(검사요강에 의하면,

‘기회 없음’인 경우는 전체 검사 해석 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결측치로 처리함)으로 처리되었다. 4개 영역별로 산출된 ‘정상’ 항목의 비율을 합산하여 발달특성 점수로 간주하였다. 영아의 기질은 ‘EAS 기질척도: 부모용’(The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 Parental Ratings)(Buss & Plomin, 1984)으로써 측정되었다. 부모평정형 EAS는 비교적 문항 수가 적고 1세~9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성을 제외한 2개 하위차원별 5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등의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위차원별로 문항의 반응점수 합계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성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며, 활동성의 경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하위차원별 문항 신뢰도는 각각 .75, .72로 나타났다.

### 3) 가구 및 가족내·가족외 특성

가구 및 가족내 특성으로서의 가구소득의 조사를 위해 개방형 면접 방식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위로 조사하였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는 어머니 대상의 질문조사에서 지필식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서 발췌된 후 1차년도 조사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수정된 4개 문항들이었다. 각 문항에 주어진 아버지의 양육행동 보기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참여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었다. 문항 총점을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가족외 특성으로서 포함된 변인인 사회적 지원의 측정을 위해 이재림과 옥선화(2001), 조병은(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자체 제작된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는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사교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4개 하위요인, Likert식 5점 척도 형식의 총 12개 문항(예;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문항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93이었다.

## 2. 자료의 분석 방법

<연구문제 1> 즉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점 각각에서 측정된 산후우울 점수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우울수준 범주화 기준(육아정책연구소, 2011)에 근거하여 우울 수준을 범주화 하였다. 산후우울의 변화 양상은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점의 우울 점수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즉 쌍별 t검증과 함께 우울 수준 범주에서의 변화 양상을 알기 위한 측정시기와 우울 수준 범주간의 관계 유의성 분석 즉 교차분석으로써 파악되었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즉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가 양육 관련 체계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변인들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연령, 학력, 취업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관계수를 산출하고, 4개의 모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 I 은 본 연구의 연구변인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적용한 모형이었다. 2단계에 적용한 모형 II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 특성에 해당하는 하위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한 모형이었다. 모형 III과 모형 IV는 모형 I 과 모형 II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이에 3단계에서는 영아의 특성, 4단계에서는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를 둘러싼 가구 및 가족내·가족외 특성 변인군이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되었다. 각 단계에서 독립변인들은 입력방식으로 투입되었으며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VIF를, 이레치(outlier)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Cook의 거리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다.

## III. 연구 결과

### 1. 산후우울 변화 양상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을 알기 위해 먼저,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점 각각에서 측정된 산후우울 점수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쌍별 t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산후 1개월 우울 점수의 평균은 9.05 (SD=3.36), 1차년도 조사시점의 우울 점수 평균은 11.80 (SD=4.8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의 유의성을

<표 2> 측정시기별 산후우울 점수의 기술통계치와 쌍별 t검증 결과

측정시기	M	SD	t
산후 1개월	9.05	3.36	
1차년도 조사시점	11.80	4.81	
산후우울 변화점수 <sup>a</sup>	2.75	5.30	17.16***

\*\*\*p<.001

a: 산후우울 변화 점수= 1차년도 조사시점의 우울 점수 - 산후 1개월 시점의 우울 점수

<표 3> 측정시기별 · 우울 수준 범주별 빈도(%)와 x<sup>2</sup>검증 결과

산후 1개월	1차년도 조사시점				x <sup>2</sup>
	정상	경도 / 중등도	중도	전 체	
정상	663 (67.93)	228 (23.36)	85 ( 8.71)	976 (100.00) ( 89.05) <sup>a</sup>	17.81***
경도/중등도	54 (54.55)	31 (31.31)	14 (14.14)	99 (100.00) ( 9.03)	
중도	7 (33.33)	10 (47.62)	4 (19.05)	21 (100.00) ( 1.92)	
전체	724 (66.06)	269 (24.54)	103 ( 9.40)	1096 <sup>b</sup> (100.00) (100.00)	

\*\*\*p<.001

a: 산후 1개월 시점의 우울 수준별 빈도 백분율임.

b: 시스템 결측치에 의해 분석대상 전체(N=1097)와는 차이가 있음.

검증하기 위해 산후우울 변화점수 즉 측정시기간의 차이 점수를 쌍별 t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t=17.16, p<.001). 이에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 영아 어머니의 산후우울 수준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다.

측정시기에 따른 우울 수준 범주의 변화 양상을 알기위해 측정시기별 · 우울 수준 범주별 빈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후 1개월에 측정된 우울 수준 범주별 빈도 분포는 정상 976(89.05%), 경도/중등도 99(9.03%), 중도 21(1.92%)이었으나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정상 724(66.06%), 경도/중등도 269(24.54), 중도103(9.40%)으로 경도/중등도와 중도 범주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정 시기에 따른 우울 수준 범주 빈도의 분포 경향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x<sup>2</sup>=17.81, p<.001).

## 2.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간의 관계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양육 관련 체계변인별 측정치의 기술통계치와 함께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양육 관련 체계변인 중 어머니의 특성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47, p<.001; r=.41, p<.001).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변화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우울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영아의 특성 중에서는 출생순위와 기질 정서성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r=-.09, p<.01; r=.17, p<.001). 즉 출생순위 점수가 낮을수록, 기질 정서성

<표 4> 양육 관련 체계변인별 측정치의 기술통계치 및 산후우울 변화도 점수간의 편상관계수<sup>a</sup>

양육 관련 체계변인			기술통계치		산후우울 변화도 점수와의 편상관계수
			M	SD	
어머니 특성	긍정적 심리 특성	자아존중감	30.00	4.21	-.47***
		양육지식	.33	.10	.03
	부모됨 특성	양육스트레스	27.56	6.50	.41***
영아 특성	지위 속성	월령	4.68	.96	-.06
		성 <sup>b</sup>	1.48	.50	.03
		출생순위	1.62	.70	-.09**
	행동적 속성	발달특성	1.09	.28	.00
		기질 정서성	13.60	3.13	.17***
		기질 활동성	16.64	2.76	-.06
가구 및 가족내 · 가족외 특성	가구 특성	가구소득	315.76	146.76	.00
	가족내 특성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	14.33	3.24	-.18***
	가족외 특성	사회적 지원	4.19	.61	-.05

\*\*p<.01, \*\*\*p<.001

a: 통제변인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취업여부  
b: 남아 1, 여아 2인 연속변인으로 간주함.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변화도 점수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영아의 출생순위가 첫째에 가까울수록, 기질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산후우울이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영아의 월령, 성, 발달특성 및 기질 활동성은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족내 특성으로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18, p<.001$ )를 보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점수가 낮을수록 산후우울 변화도 점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산후 1개월에서의 우울 수준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우울 수준이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가족외 특성으로서는 사회적 지원과 산후우울 변화도간의 각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3.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변인으로 구성된 모델 I 을 포함한 양육 관련 체계변인 중 어머니 특성, 영아 특성, 가구

및 가족내 · 가족외 특성 범주의 변인들이 추가된 4개 회귀식 모델에 의한 산후우울 변화도 예측이 의미있다고 볼 수 있었다. 모델별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인 독립변인과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 I 즉 통제변인들로 구성된 모델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발견되었고 설명변량은 2%였다. 어머니 특성 변인이 추가된 모델II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에 유의하게 영향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1단위 높아지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35단위 낮아지며, 양육스트레스가 1단위 높아지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21단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에 의한 추가 설명변량이 24%로 어머니 특성 변인에 의한 산후우울 변화도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II에 영아의 특성 변인을 추가한 모델III의 경우, 예측력이 2% 추가되었고 이는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월령에 의한 것으로 월령이 1단위 높아지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11단위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영아를 둘러싼 가구 및 가족내 · 가족외 특성 변인을 포함하는 모델IV에서는 가족외 특성인 사회적 지원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원이 1단위 증가하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06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올림하기 전 수정된 R<sup>2</sup>이 모델III은 0.276, 모델IV는 0.277이었으므로 사회적 지원 변인에 의한 추가 설명변량은 0.1%였다.

<표 5>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양육 관련 체계변인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β	B	β	B	β	B	β	
상수	7.66***		14.85***		15.42***		17.85***		
통제변인	어머니의 연령	-.12**	-.09	-.09*	-.07	-.09*	-.07	-.10*	-.07
	사회인구학적 변인	-.36*	-.07	-.07	-.01	-.01	-.00	-.01	-.00
	취업 여부	.36	.06	.02	.00	-.02	-.00	.04	.01
양육관련 체계변인	어머니 특성			-.45***	-.35	-.46***	-.36	-.45***	-.36
	자아존중감								
	양육지식			-.62	-.01	-.61	-.01	-.54	-.01
	양육스트레스			.18***	.21	.17***	.20	.16***	.19
	영아 특성					-.59***	-.11	-.60***	-.11
	월령								
	성					.55	.05	.55	.05
	출생 순위					.19	.03	.15	.02
	발달 특성					.23	.01	.22	.01
	기질 정서성					.08	.05	.08	.05
	기질 활동성					.01	.01	.01	.00
	가구 및 가족내							.00	.03
	· 가족의 특성								
	아버지 자녀 양육참여도							-.03	-.02
	사회적 지원							-.51*	-.06
F	5.94***		102.50***		3.58***		3.93*		
R <sup>2</sup>	.02		.27		.29		.29		
수정된 R <sup>2</sup>	.02		.26		.28		.28		

\*p<.05, \*\*p<.01,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산후우울의 변화도에 관계있으며 그것에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양육 관련 체계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의 변화를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점에 측정된 산후우울 점수의 차이로써 살펴 본 바,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우울 수준의 범주화 결과 산후 1개월 시기에는 89.05%가 정상집단이었으나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66.0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 1개월의 우울 수준이 출산전에 비해 감소하지만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다시 높아진다는 한국 아동패널 표본 전체로 부터의 우울 변화 경향(조복희 등, 2009)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산후 4~7개월경의 1차년도 조사시점1)에서 임상적

우울집단인 경도/중등도 및 중도 수준의 어머니가 33.9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후 6개월경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Brown & Lumley, 2000; Josefsson et al., 2001)에서 보고한 산후우울의 유병률 13~17%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병률 수준인 10~15%(여정희, 2006)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물론 산후우울의 유병률은 측정시기, 측정도구 및 유병 판단기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여정희, 2006; Halbreich, 2005) 연구결과들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우울 수준 변화도의 분포 양극단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출산 초기를 포함한 6개월 미만의 산모를 대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산후우울 수준을 보이는 비율이 25% 전후라는 보고들(권미경 등, 2006; 장정애, 2006; Gotlib et al., 1991; Verkerk et al., 2002)에 비추어 우리나라 영아어머니들의 산후우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특히 산후 1개월에 정상집단 수준이었으나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32.07%가 경도/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변화된 현상은 산후우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심각성을 간과함에 따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우울의 증가 요인에 대한 탐색과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1) 분석대상 중 영아 월령별 유효빈도의 백분율 기준 85.73%가 산후 4~5개월, 9.28%가 산후 6~7개월임(<표 1> 참조).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어머니 특성 범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의 변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산후우울 증가간의 부적의 관계는 출산후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신체 변화, 역할 변화에 따라 손상됨으로써 산후우울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 권정혜(1997), 유정미(2008), 이나경(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 것이었다. 영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수준이 산후 1개월 때보다 많이 높아진다는 결과 또한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권미경 등, 2006; 김미예·박동영, 2009; Webster-Stratton & Hammond, 1988)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이는 산후 스트레스 상태에서 어머니의 대처 역치를 넘어서는 긴장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Cutrona, 1991)는 점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반면 양육지식은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산후우울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지식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자신감을 증가시켜 역할수행 관련 어려움과 두려움의 감소, 우울 수준 감소로 이어진다는 오현이(2001), 이화자 등(200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반면 15개월~36개월 영아어머니에서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이경하(2009)의 보고와는 일관된 것이었다.

영아의 특성과 산후우울 변화도간의 관계 분석에 의하면 영아의 월령, 성, 발달특성 및 기질 활동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으나 출생순위, 기질 정서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첫째에 가까울수록 산후우울의 증가가 크다는 결과는 첫째아 또는 외동아의 어머니는 양육 경험 부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문혁준, 2004)나 자녀와의 격리불안 수준(박성옥, 1993)이 높다는 연구들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었다.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인지하게 하거나 자신의 상황적 요구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각하게 함(문혁준, 2004; Collins & Russell, 1991)으로써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와 좌절감, 우울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가구 및 가족내 특성으로서의 가구소득은 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으나,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는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더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결과는 김미예와 박동영(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으나, 김현진(2007), 장정애(2006), 오현이(2001) 등의 보고와 일관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과된 본 연구의 이러한 상관 관련 결과는 천희영과 옥경희(2010)의 연구에서 소득수준과 산후우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수 크기가 -.08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남편의 가사 참여(장정애, 2006)나 지지(여정희, 2006; 오현이, 2001)가 낮을수록 산후우울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에 영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남편의 지지와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Fletcher(2009)의 연구결과와 함께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아버지의 부모역할수행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특성 범주의 사회적 지원 변인은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원의 하위차원 중 정서적 지지원이 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 $r=-.17, p<.001$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정서적 지원에 의한 심리적 안정감의 제공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와 부적적으로 관련됨(김지양, 2004; 문혁준, 2004)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분석한 결과, 어머니 특성 범주에 속하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낮은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산후우울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산후우울과 어머니 자존감의 관계가 유의하지만 유의한 예측변인은 아니라는 여정희(2006)의 연구결과와는 다르지만 이나경(2006)과 유정미(2008)의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주장(최미래, 2000)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영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산후우울의 증가를 예측하는 변인임은 두 변인간의 관계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들(권미경 등, 2006; 김미예·박동영, 2009)과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직접 확인한 연구들(장정애, 2006; 안옥심, 2004)을 통해 보고된 바와 상통하는 결과였다. 김미예와 박동영(2009), 안영미와 김정현(2003)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하여 부모역할수행 과정에서 역기능적인 모자 상호작용이나 부정적인 모성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특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우울과의 관계를 통해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울러 어머니의 부모됨 특성으로서의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을 높여 긍정적인 어머니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주연(2009), 이화자 등(2004)의 주장에 근거할 때 산후우울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육지식이 산후우울의 증가와 유의

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양육지식은 산후우울 증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아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어머니의 학력 및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이주연·이석호, 2010; 최유리,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사전에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지식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영아의 특성이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특성 범주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바, 영아의 월령 변인이 유의한 영향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 변화도와 영아의 출생순위, 기질 정서정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유의한 영향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전에 투입된 어머니 특성 범주의 통제변인과 월령 이외의 영아 특성 변인들과의 공변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역할수행이나 양육부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손상, 양육스트레스나 우울과 영아의 특성 변인인 성과 출생순위(권미경, 2011; 권연희·나종혜, 2010), 발달특성과 기질(권미경, 2011; 권미경 등, 2006; 문혁준, 2004; 서주현·김진경, 2010; Cutrona, 1991)간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변인들의 영향력이 사전 모델에서의 영향력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영아의 월령은 산후우울 변화도와 상관관계 유의성은 없었으나, 다른 영아 특성 변인들과 달리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서 월령이 1단위 높으면 산후우울 변화도 즉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우울 증가가 약 1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 관련 자아효능감이 낮아진다는 문영경과 민현숙(2010)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어머니들의 자녀 월령의 변화는 영아의 발달적 요구가 크게 달라질 만큼의 큰 범위가 아니어서 양육에의 부담감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월령 증가에 따라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양육과정의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해석 가능한 결과였다.

어머니와 영아의 양자 관계를 둘러싼 양육 관련 체계변인으로서 가구 및 가족내·가족의 특성이 산후우울 변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원 변인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총점)은 산후우울 변화도와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전 통제변인과의 공통 영향력을 제외한 독립적인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변인의 영향력은 1단위 증가 시 산후우울 변화도가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회적 지원 변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사교적·도구적·정보적 지원이 어머니의 산후 적응을 돕고 우울을 감소시키며(Ferree, 1976), 스트레스 완충효과(박지원, 1985)가 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함께 어머니와 영아를 둘러싼 또 다른 지지 체계로서의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 변인은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영향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나 남편의 지지가 산후우울 예측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유정미, 2008; 장정애, 2006)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남편의 영아 돌봄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어 산후우울 수준을 낮추며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지양, 2004; 김현진, 2007; 여정희, 2006)과는 일관된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지지의 부재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Wandersman et al., 1980, 안옥심, 2004 재인용), 아버지의 양육참여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더 중요하고(장정애, 2006), 아버지의 지지가 산후우울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그 작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김지양, 2004)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의 지지가 산후 영아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구소득 역시 산후우울 변화도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 즉 두 변인간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김현진, 2007; 오현이, 2001; 장정애, 2006)와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나 유병이 높다는 결과(김미예·박동영, 2009; 허보윤·한경자, 2009; Dearing et al., 2004)가 보고되고 있다. 산후우울은 아니지만 성인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결혼과 부모됨의 영향을 살펴본 차승은(2005)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클 때는 배우자와의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더라도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고,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의 정신건강과 어머니 역할의 관련성에서 중재 변수가 됨을 보여 주었다. 이에 추후 가구소득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체계 변인들의 효과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요청되었다.

한편 양육 관련 체계변인의 범주별 산후우울의 변화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바, 어머니 특성이 26%, 영아 특성이 2%, 가구 및 가족내·가족의 특성은 0.1%의 설명변량을 보임으로써 어머니 특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됨 특성인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 영아어머니들에 있어 산후 1개월 이후 우울 수준의 증가가 우려되는 수준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는 산후우울의 예방을 위해서 산모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양육 관련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관련하여, 산후우울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개입의 적절한 시기는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산전보다는 산후(Dennis, 2005; 오의숙, 2008 재인용) 또는 산전과 산후(Buist, 2003; 오의숙, 2008 재인용) 시기이며, 긍정적인 부모 역할과 우울·불안·자존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부모교육과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Dennis, 2005, 오의숙, 2008 재인용)들은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산후 1개월 이후 우울의 증가를 줄이는데 기여하면서도 영아의 월령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에 의한 사회적 지원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영아어머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취업모의 우울감 수준은 취업모보다 높고(차승은, 2005), 이들은 취업모와 달리 점차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과 긴장감으로 자신이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지원이 양육 관련 스트레스의 감소에 더 중요하다(Ferree, 1976)는 점에서 기인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Cowan과 Cowan(1987)은 산후우울의 가장 두드러진 위험요인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사회적 지지원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족 외부인들에 의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같은 방안의 마련이 적극 요구되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산후우울 관련 변인과 그것을 예측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수행했던 천희영과 옥경희(2010)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결과, 일부 투입된 독립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육지식, 가구소득 등의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아 특성으로서의 기질의 두 하위차원 모두 산후우울 변화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산후 1개월 이후의 우울수준 변화 정도와의 관계나 예측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후우울 변화도의 예측에 있어 영아 특성으로서의 기질은 사전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 특성 변인이나 다른 영아 특성 변인들과의 공변량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아울러 어머니의 부모됨으로서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 특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원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밝혀져 이 두 변인의 중요성을 다시 주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로 표집된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개인내 산후우울 변화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대상으로 부터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후우울 변화와 관련된 양육 관련 체계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아어머니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후우울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패널조사 자료들로써 아동발달과 어머니 산후우울간의 인과관계를 양육 관련 체계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수정·김지원(2010). 가구소득과 영아 기질, 부부갈등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47-661.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미경(2011).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39-50.
- 권미경·김혜원·김남선·장정애(2006). 영아기 어머니의 산후 우울 정도와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 스트레스, 영아기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2(3), 314-321.
- 권연희·나종혜(2010). 영아의 행동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 환경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95-311.
- 권정혜(1997).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후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55-66.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애·박동영(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지양(2004). **산후 우울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7).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산후 우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영경·민현숙(2010).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39-155.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문혁준(2008). 부모-자녀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아동학회지**, 29(3), 15-31.

- 박성연 · 전춘애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옥(200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주 · 신현정 · 유호신 · 천숙희 · 문소현(2004). 산후우울 예측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722-728.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경숙(2008). 임신부 우울이 자녀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부모 · 자녀건강학회지**, 11(1), 15-24.
- 서주현 · 김진경(201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31-345.
- 신나리(2010). 산전후 우울 변화.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 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13-329.
- 신희선 · 한정자 · 오가실 · 오진주 · 하미나(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 안옥심(2004).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산육기 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영미 · 김정현(2003). 일반아모와 추후관리를 받은 저출생 체중아모의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가족기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3(5), 580-590.
- 여정희(2006). 출산후 6개월 여성의 산후우울 정도와 예측 요인. **여성간호학회지**, 12(4), 355-362.
- 오의숙(2008). 출산 후 산모의 우울정서에 대한 조기 부모 교육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현이(2001). 산육기 산모의 모성 정체성, 어머니 역할수행 자신감과 산후우울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2), 255-266.
- 유정미(2008). 산후 6개월 이내 산모의 산후 우울 정도와 예측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2011). 한국아동패널 2008(1차년도) 도구프로 파일. <http://kicce.re.kr>.
- 이경선(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03-124.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경(2006). 모성 우울이 영아의 기질과 수면, 모성 수면과 자존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옥 · 여정희 · 안숙희 · 이현숙 · 양현주 · 한미정(2010). 산후 우울 수준과 분만전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1), 29-36.
- 이숙자 · 임성옥(200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0(1), 100-118.
- 이정림 · 이정원 · 김진경 · 송신영 · 왕영희 · 이예진 · 신나리 · 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재림 ·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주연(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5), 35-48.
- 이주연 · 이석호(2010).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대한가정학회지**, 31(4), 179-197.
- 이화자 · 이승아 · 김명희 · 김영혜 · 박남희(2004).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자신감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9(3), 262-271.
- 정윤주 · 채진영(2010). 어머니의 부모역할 적응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83-101.
- 장정애(2006). 산후우울과 지각된 영아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은 · 서동인 · 신화용 · 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조복희 · 신나리 · 안재진 · 이정림 · 최윤경 · 송신영 · 김주연 · 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차승은(2005). 결혼 및 부모됨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 · 옥경희(2010). 영아 어머니 우울의 예측 변인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9-82.
- 최미례(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유리(2006). 어머니의 육아방식 및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 12개월 이하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보윤 · 한정자(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 · 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진(2001). 자존감, 스트레스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ardslee, W. R., Bernporad, K., Keller, M. B., & Klerman, G. L.(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832.
- Beck, C. T.(1996).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partum depression and infant temperament. *Nursing Research*, 45(4), 225-230.
- Beck, C. T.(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Nursing Research*, 50(5), 275-283.
- Beck, C. T.(2002). Theoretical perspectives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their treatment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27(5), 282-287.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 Benasich, A. A., &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1186-1205.
- Brown, S., & Lumley, J.(2000). Physical health problems after childbirth and maternal depression at six to seven months postpartum.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107, 1194-1201.
- Buist, A.(2003). Promoting positive parenthood: Emotional health in pregnancy. *Australian Journal of Midwifery*, 16(1), 10-14.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Collins, W. A., & Russell, G.(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 99-136.
- Cowan, C. P., & Cowan, P. A.(1987).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couples becoming parents. In C. F. Z. Boukydis(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225-252). Norwood, NJ: Ablex.
- Craig, E. A.(2003). Mental illness in women who have young children: Current literature. *Australian Journal of Midwifery*, 16, 5-9.
- Crockenberg, S. C., & Leerkes, E. M.(2003). Parental acceptance,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sensitivity: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80-93.
- Cutrona, C. E.(1991). Nonpsychotic postpartum dep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487-503.
- Dearing, E., Taylor, B. A., & McCartney, K.(2004). Implications of family income dynamics for women's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first 3 years after childbirth. *American Journal Public Health*, 94, 1372-1377.
- Dennis, C. L.(2005). Psychosoci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postnatal depression: Systematic review. *British Medical Journal*, 331, 15-22.
- Downey, G., & Coyne, J. C.(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Ferree, M. M.(1976). The confused American housewife. *Psychology Today*, 10(4), 76-89.
- Fletcher, R.(2009). Promoting infant well-being in the context of maternal depression by supporting the fath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0(1), 95-102.
- Forman, D., O'Hara, M. W., Stuart, S., Gorman, L., Larsen, K., & Coy, K. C.(2007). Effective treatment for postpartum depression is not sufficient to improve the developing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585-602.
- Gotlib, I. H., Whiffen, V. E., Wallace, P. M., & Mount, J. H.(1991).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Factors involved in onset and recover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2), 122-132.
- Halbreich, U.(2005). The association between pregnancy processes, preterm delivery, low birth weight, and postpartum depressions: The need for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3, 1312-1322.

- Jennieffer, A. B.(2006). Postpartum depression, delayed maternal adaptation, and mechanical infant caring: A phenomenological hermeneutic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3), 362-369.
- Josefsson, A., Berg, G., Nordin, C., & Sydsjo, G.(2001).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late pregnancy and postpartum. *Acta Obstet Gynecol Scand*, 80(3), 251-255.
- Jung, M. H., & Kim, J. I.(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blu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1), 38-45.
- Kessler, R. C., And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Walters, E. E., & Zaslavsky, A.(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erner, R. M.(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2nd ed.)*. NY: Random House.
- Lerner, R. M., & Busch-Rossnagel, N.(1981).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own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NY: Academic Press.
- Martins, C., & Gaffan, E. A.(2000). Effects of early maternal depression on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6), 737-746.
- MacPhee, D.(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ercer, R. T.(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 198-203.
- O'Hara, M. W., Neunaber, D. J., & Zekoski, E. M.(1984). Prospective study of postpartum depression: Prevalence course and predictive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58-181.
- Rosenberg, M.(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rev.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cher, A., & Sharabany, R.(2005). Parenting anxiety and stress: Does gender play a part at 3 months of ag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2), 203-213.
- Verkerk, G. J., Pop, V. J., Van Son, M. J., & Van Heck, G. L.(2002). Prediction of depression in the postpartum period: A longitudinal follow-up study in high-risk and low-risk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7(2), 159-166.
- Wandersman, L., Wandersman, A., & Kahn, S.(1980). Social support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332-342.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1988). Matern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3), 299-315.

접수일 : 2011년 09월 07일

심사일 : 2011년 09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30일